



■ 침실로 올라오세요, 창문을 통해



저자: 마이라 산토스 페브레스 외 (지은이), 클라우디아 마시아스 (역은이), 우석균 외 (옮긴이)

출판사: 문학동네

출간일 : 2008년 1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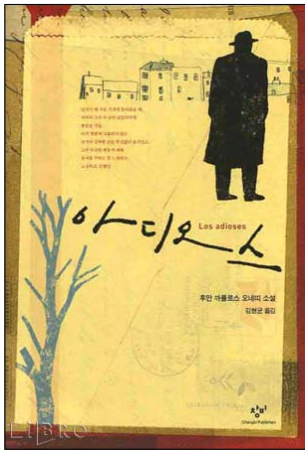
ISBN : 9788954606813

양장본 (188X128) | 332페이지

라틴아메리카단편선 『침실로 올라오세요, 창문을 통해』는 스페인어권 9개국 출신의 젊은 작가 15인의 단편소설을 수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라틴아메리카문학은 곧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고정관념이 뿌리 깊은데, 이 작품집은 가르시아 마르케스 세대와 전형 다른 신세대의 문학적 감수성을 엿볼 수 있어 참신한 라틴아메리카 문학에 목말라하는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외국인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클라우디아 마시아스가 엄선하고, 우석균 등이 번역한 이 작품집은 멕시코의 크랙(Crack) 그룹에 속하는 이그나시오 파디아(Ignacio Padilla)와 맥콘도 그룹에 속하는 볼리비아 작가 에드문도 파스 솔단(Edmundo Paz Soldán)의 단편을 수록하여 가치가 더욱 빛난다.

■ 아디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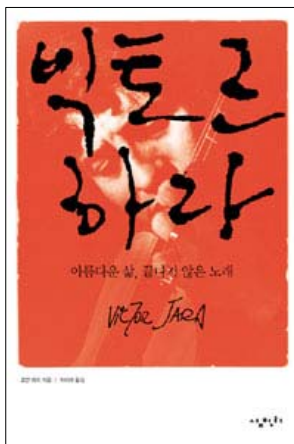
원제: Los Adioses
 후안 까를로스 오네띠(지은이), 김현균(옮긴이)
 출판사: 창비(창작과비평사)
 출간일: 2008년 5월 15일
 ISBN(13): 9788936471415
 양장본 | 159쪽 | 195*134mm

은둔의 작가로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네티(Juan Carlos Onetti)의 장편소설. 폐결핵 환자인 전직 농구선수와 그의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다. 소설은 작가의 서술기법인 ‘가십 픽션’으로 서술된다.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이야기가 마을의 단 하나뿐인 가게 주인의 시점에서 서술되는 것이다. 이처럼 소설은 작가가 창조한 새로운 소설문법으로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 기존의 독법, 그리고 소설 자체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진다.

한때 농구선수로 스포츠신문의 톱을 장식했던 퇴역 스타. 결핵에 걸려 산중의 요양도시로 찾아든다. 그리고 그가 호텔에 머무는 동안 두 종류의 편지가 번갈아 날아들고, 발신인은 둘 다 여성이다. 이 우편물을 받아 그에게 전하는 가게 주인 ‘나’는 두 여자와 그의 관계를 궁금해 한다. 그리고 가게를 드나드는 주변 인물들인 간호사, 호텔 웨이트리스, 의사와 함께 그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어느 날, 한 여자가 그 도시에 나타난다. 그리고 이어 또 한 여자가 나타난다. 나이든 여자와 젊은 여자. 그 둘은 어색하게 마주치고 그와의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른다. 그러다 나이든 여자는 돌아가고 어린 여자와 농구선수는 산장을 얻어 체류한다. 그리고 젊은 여자가 돌아가자 다시 두 종류의 편지가 번

같이 날아든다. 산장에 계속 머물러 있던 남자가 죽는데... 결말에서 밝혀지는 사실은 이제까지 진행된 이야기의 의미를 잃게 만들고, 이 소설의 묘미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 빅토르 하라 - 아름다운 삶, 끝나지 않은 노래



원제 Victor, Unfinished Song

조안 하라(지은이), 차미레(옮긴이)

출판사: 삼천리

출간일: 2008년 9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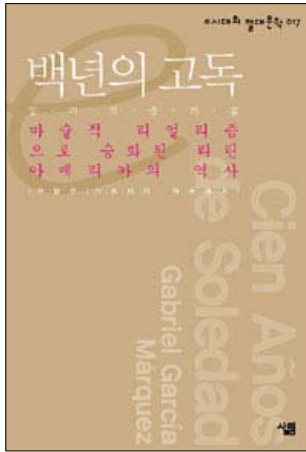
ISBN(13): 9788991625013

반양장본 | 512쪽 | 210*140mm

1973년 9월 11일 피노체트 쿠데타에 항거한 칠레의 민중 가수 빅토르 하라의 삶과 예술과 투쟁을 기록한다. 빅토르 하라는 1960~70년대 라틴아메리카 노래운동인 '누에바 칸시온'의 대표 주자로 칠레 민중과 아옌데 인민연합 정권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기여한 문화예술 운동가이다.

삶의 마지막까지 <벤세레모스(우리 승리하리라)>를 부르며 저항하다 팔이 부러지고, 끝내는 군인들에게 처참하게 사살 당했다. 이 책은 아내가 대신 쓴 자서전이며 혁명과 쿠데타라는 역사 속에 놓인 러브스토리이다. 또한 칠레 현대 정치사와 문화예술의 흐름을 기록한 역사책이자 증언 문학으로서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고전으로 평가받는다. 파블로 네루다, 살바도르 아옌데와 함께, 사망한 지 3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칠레 민주화의 상징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 백년의 고독: 마술적 리얼리즘으로 승화된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유왕무(지은이)
 출판사: 살림
 출간일: 2008년 1월 30일
 ISBN(13): 9788952207821
 양장본 | 228쪽 | 188*128mm (B6)

『백년의 고독』은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백미로 꼽힌다. 출간되자마자 공전의 히트를 쳤고, 작가 가브리엘 마르케스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주었다. 현재 세계 30여 개국에서 출판되어 2천만 명의 독자들을 사로잡은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떻게 읽어야 할까? 『백년의 고독 - 마술적 리얼리즘으로 승화된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은 이 물음에 답한다.

저자에 따르면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유년시절, 특히 외가에서 보낸 시간들은 『백년의 고독』의 탄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 미국의 연합청과회사와 콜롬비아 정부가 저지른 바나나 농장 노동자 학살 사건, 천일 전쟁에 참전했던 외할아버지가 들려준 전쟁담과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외가 근처에 있던 ‘마콘도’라는 바나나 농장은 그대로 작품의 뼈대가 되었고, 휴과 석회를 먹던 동생 마르곳, 외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를 둘러싼 인물들은 등장인물들의 원형이 되었다. 이외에 기자 시절 마르케스의 경험들, 바랑키야 그룹의 영향 등도 상세히 소개한다. 이러한 작품의 배경 설명과 이 책에 담긴 해석적 독해는 『백년의 고독』을 더욱 풍성하게 읽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 신간소개의 이미지는 모두 알라딘(<http://www.aladdin.co.kr>)에서 가져온 것입니다.